

신속하게 피해회복 '지원' 도심 공원면적 확 늘린다

익산시, 2024년까지 도심 5곳 공원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익산시가 도심 공원면적을 대폭 늘려 시민들에게 휴과 여가가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힐링도시로 거듭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5곳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6.8㎡에서 11.2㎡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익산지역 전체 공원조성면적도 기존 190만2천여㎡에서 313만7천여㎡로 1.7배 가량 확대된다.

이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웠던 공간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으로 재탄생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가장 먼저 착공한 마동·수도산 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해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100% 매입 후 70%에 명품 공원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뒤 공원 내 훼손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에 달하는 1.6㎢ 규모의 면적에 도시숲이 조성돼 도내 대표적 녹색힐링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 실시... 현장 목소리 경청



익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인까지 아우르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난 18일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임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수홍 국회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욱), 소상공인 및 7개 전통시장 상인회 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장기 저금리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율 상향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전을 위한 전통시장 법인전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각지대 영세사업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카드수수료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들에게 연간 24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재택치료자 행정안내센터 24시간 운영

군산시, 주·야 휴일여부 상관없이 코로나19 관련한 일반민원상담

군산시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과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재택치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내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재택치료 지원, 백신에 방접종 등의 업무로 인하여 전화연결의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청 내에 행정안내센터를 설치,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재택치료자(공동격리자)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청 내에 설치된 행정안내센터는

의료상담 이외의 일반민원, ▲재택치료 격리관리 등 생활수칙 안내, ▲재택치료기간 시작·해제일, ▲의료상담의 비대면의료기관 및 이용방법,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내센터 대표번호는 ☎454-3511~3515, ☎454-4750~4754번으로 주·야간 및 휴일 여부 관계없이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재택치료자의 야간 의료상담을 위해 24시간 의료상담센터(☎ 063-472-5573, 472-5575)도 운영중에 있으며, 기초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정현을 시장, 왕궁면 악취 해소 현장 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이 왕궁면 운수마을 주민들의 축산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행정에 나섰다.

정 시장은 21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인근 운수마을 주민들, 인근 사업장의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정은 운수마을 인근 축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운수동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운수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고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그에 따른 대책 및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이에 정 시장은 먼저 왕궁정착농원

및 축산단지 인근에 위치해 악취로 고통받은 운수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재 악취 발생원 제거를 위해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며, 인근 학교마을의 축사도 매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인근 사업장 대표들과 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및 방법 제시를 요청하였고, 해당 사업장 담당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운수마을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장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하며, 운수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보건소,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보건소 내 재활치료를 확장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쾌적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해져 재활치료실 이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재활치료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 장애 유형별·상태별 1:1

맞춤 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정신 자극운동 등 지속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장애인들을 위해 선유도에서 유럽선을 타고 산책하는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재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예와 공예 수업을 진행해 촉각 자극과 소근육 발달 등 신체적 기능을 향상하고 내면에 있는 자신감을 회복, 정서적 안정에 성과를 얻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25일 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등록세 최대 280만원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보건소,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아토피 질환의 올바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체험교실 등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소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일환으로 올해도 아토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침양산 꼬마 숲 놀이터에서 자연을 통한 힐링 체험을 연 4회(6월 2회, 9월 2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토피 진단(질병코드 I20)을 받은 만1세이상 만8세이하 아토피 질환자에게 월회(로션 또는 비누 등)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산에 거주하는 만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 피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I20) 진단을 받은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4인 소득기준: 512만원)가정에 연간 1인당 50만원(최대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